

2023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4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경수 선임연구원(yksoo@kdb.co.kr)
양서영 선임연구원(syeong@kdb.co.kr)

I. 2023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II. 2024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2023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24.7조원으로 전년동기 181.2조원 대비 56.5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중소기업대출 49.4조원, 대기업대출 34.0조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동기대비 30.7조원 감소한 83.4조원을 기록하였다. 직접금융규모는 41.3조원으로, 회사채 순발행 및 주식 발행 규모가 모두 축소되며 전년동기대비 25.8조원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 자금조달규모는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시기 조달규모 70.6조원(간접금융 48.7조원, 직접금융 21.9조원, '17~'19년 1~11월 3개년 평균)과 비교시에는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업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 등으로 2.2%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고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실물경기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책·규제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기업금융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기업의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되나, 자금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상승세인 가운데 대출태도도 강화되는 추세인 점이 은행권 자금공급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간접금융시장은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대출수요가 지속되어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하나, 기업 신용위험 증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증가액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금리하락에 따른 발행시장 여건 개선, 기업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회사채 및 주식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2023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1. 기업금융규모¹⁾(자금조달규모) 추이

- 경기 둔화와 조달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직접 및 간접금융이 모두 줄어들면서 '23년 기업의 총 자금조달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 '23.1~11월 중 직·간접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기간중 증감액)는 전년 동기대비 56.5조원 감소(△31.1%)한 124.7조원
 - 간접금융규모는 8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7조원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7~'19년 동기평균(48.7조원)대비 1.7배 높은 수준
 - 직접금융규모는 41.3조원으로 전년동기(67.1조원)대비 25.8조원 감소
- 자금조달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시기('17~'19년 1~11월 3개년 평균) 조달규모(간접 48.7조원, 직접 21.9조원)와 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
- '23.1~11월 중 전산업의 체감 자금사정(BSI)은 81로 전년동기대비 악화

〈표 1〉 기업금융 체감 자금사정 및 조달규모 추이 (단위 : %, %p, 조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11월(a)	연간	1~11월(b)	(b)-(a)
GDP 성장률 ¹⁾	2.9	2.2	△0.7	4.3	3.0	2.6	0.9	△2.1
자금사정BSI ²⁾	84	82	76	87	84	84	81	△3
대기업	82	92	84	96	89	89	83	△6
중소기업	85	72	66	76	75	75	76	1
기업금융 ³⁾	65.6	93.5	167.8	174.7	181.2	175.0	124.7	△56.5
간접금융	42.7	44.9	107.4	89.3	114.1	104.6	83.4	△30.7
직접금융	22.9	48.6	60.5	85.4	67.1	70.4	41.3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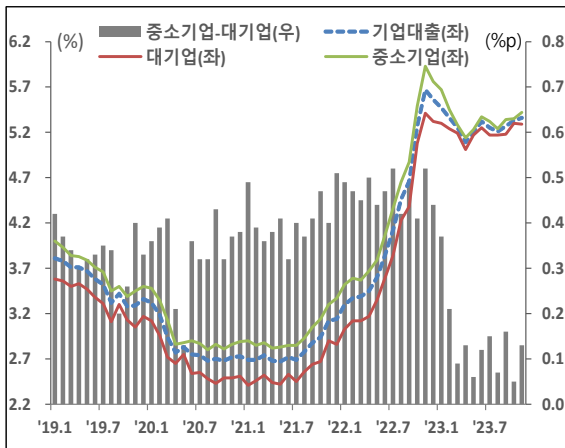
주 : 1) GDP 성장률의 (a), (b)란은 해당연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부정 응답을 0~200 사이값으로 지수화한 것(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부정응답 업체수가 긍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 대·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3) (간접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직접금융)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기업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 본고에서 기업금융규모는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를 의미하며,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회사채 순발행액 (ABS, 특수채 포함) 및 주식 발행액(기업공개, 유상증자)을 합산하여 산출

□ 기업대출 및 회사채 시장금리가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조달여건 악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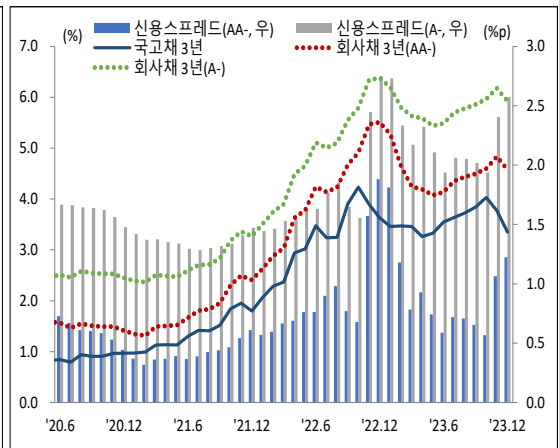
- (대출시장) 기업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1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한 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고금리 수준 유지
 - 기준금리는 '21.8월 0.75%를 나타낸 이후 총 9회에 걸쳐 인상되어 '23.1월에는 3.50%를 기록
 - 기업규모별로 대출금리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1.8월 2.56%에서 '23.11월 5.29%로, 중소기업은 동기간 2.93%에서 5.42%로 각각 273bp, 249bp 상승

<그림 1> 대출시장 차입여건



주 :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회사채시장 조달여건



주 : 회사채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 (회사채시장) 연초 회사채 투자수요가 개선되었으나, 2분기 이후 금리상승 및 경기 하방 우려 등으로 발행 여건 악화
 - '23년 초 부동산 PF 관련 채권시장 불안이 진정되면서 투자심리 개선되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2)가 빠르게 하락
 - 2분기 이후 장기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은행 대출 대비 회사채 선호가 약해졌으며,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발행 여건 악화

2) AA- 등급 신용스프레드(bp, 월말) : 164('22.12) → 81('23.4) → 76(8월) → 72(12월)

2. 주요 특징

□ (간접금융시장) 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대출과 달리 대기업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 점에 주로 기인

○ (기업대출) '23.11월말 기업대출 잔액³⁾은 1,253.7조원으로 '22.11월말대비 6.3% 증가
 - '23.1~11월 중 기업대출 증감액은 8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7조원 감소

〈표 2〉 은행대출 잔액 및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11월 (a)	연간	1~11월 (b)	증감(률) ²⁾
대출 잔 액	기업대출	824.1	869.0	976.4	1,065.7	1,179.7	1,170.3	1,253.7	6.3
	대기업	154.6	152.3	171.8	179.3	223.0	216.9	249.8	12.0
	중소기업	669.4	716.7	804.6	886.4	956.7	953.4	1,003.8	4.9
	가계대출 ³⁾	827.6	888.3	988.8	1,060.7	1,057.8	1,058.1	1,091.9	3.2
	총대출	1,651.7	1,757.3	1,965.2	2,126.4	2,237.5	2,228.4	2,345.6	4.8
증 감 액 ¹⁾	기업대출	42.7	44.9	107.4	89.3	114.1	104.6	83.4	△30.7
	대기업	5.0	△2.3	19.5	7.5	43.6	37.6	34.0	△9.6
	중소기업	37.6	47.3	87.9	81.8	70.5	67.1	49.4	△21.1
	가계대출 ³⁾	60.8	60.7	100.6	71.8	△2.9	△2.6	33.9	36.8
	총대출	103.5	105.6	207.9	161.1	111.2	102.0	117.2	6.0

주 : 1) 증감액은 잔액의 기간중 증감, 대출잔액은 기간말잔 기준

2) 증감(률)의 경우 대출잔액은 '23.11월말 대출잔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b/a-1), 증감액은 '23.1~11월중 증감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폭(b-a)

3)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대기업대출) '23.11월말 대기업대출 잔액은 249.8조원으로 '22.11월말대비 12.0% 증가

- '23년 1~11월 중 증가액은 3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인 '17~'19년 1~11월 평균 증가액(2.9조원)대비 큰 편⁴⁾

○ (중소기업대출) '23.11월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03.8조원으로 '22.11월말대비 4.9% 증가하였으며, '23.1~11월 중 증감액은 4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축소

- 코로나 이전인 '17~'19년 1~11월 평균 증가액(45.8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3)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5.4('19년말) → 12.4('20년말) → 9.1('21년말) → 9.8('22년말) → 6.3('23.11월말)

4) 2분기부터 회사채대비 대출의 장점(변동금리 조달 가능,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이 부각되면서 대출액이 꾸준히 증가

□ (직접금융시장) 회사채 순발행과 주식발행이 '21년 이후 감소하면서 직접금융 규모 축소 흐름

- (시장 규모) '23.1~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규모는 전년동기(67.1조원)대비 25.8조원 감소한 41.3조원
 - 전년동기대비 직접금융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코로나 이전 규모인 21.9조원 ('17~'19년 동기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 기록
- (회사채발행) '23.1~11월 중 회사채⁵⁾ 순발행규모는 31.1조원(발행 165.3조원, 상환 134.2조원)으로 전년동기(45.7조원 순발행)대비 14.6조원 감소
 - (순수회사채) 1분기 중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으로 발행(61조원)을 크게 늘리면서 순발행규모도 '22년 3.0원에서 '23년 11.0조원으로 증가
 - (ABS)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수요감소 등으로 순발행규모가 '22년 6.7조원에서 '23년 △7.3조원으로 14.0조원 감소
 - (특수채) 한전채 발행물량 감소 등으로 '22년(36.0조원)대비 8.6조원 감소한 27.4조원 순발행

〈표 3〉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현황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발행	'21.1~11월	101.5	27.8	36.5	165.8
	'22.1~11월	73.4	27.3	58.7	159.4
	'23.1~11월	87.5	22.8	55.0	165.3
상환	'21.1~11월	68.5	19.9	23.8	112.2
	'22.1~11월	70.4	20.6	22.7	113.7
	'23.1~11월	76.5	30.1	27.6	134.2
순발행	'21.1~11월	33.0	7.9	12.7	53.6
	'22.1~11월	3.0	6.7	36.0	45.7
	'23.1~11월	11.0	△7.3	27.4	31.1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

- (주식발행) '23.1~11월 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10.2조원으로 전년 동기(21.3조원)대비 11.2조원 감소

5)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로 구분.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을 제외한 비금융 특수채권을 특수채규모 산출 대상으로 함. 이는 직접금융시장 중 기업금융 분석에 주안점을 두기 위함임

- (기업공개) 상장 건수(114개)는 전년(110건)과 유사하였으나, 발행규모(3.4조원)는 대형 기업 IPO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축소(△9.8조원, △74.2%)
- 수요예측 부진 및 시장 둔화 등에 따라 켈리, 케이뱅크, 서울보증보험 등 대형 기업들이 IPO를 철회 및 이연
- (유상증자) 코스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발행규모(6.8조원) 감소 (△1.3조원, △16.0%)

〈표 4〉 주식발행 및 유상증자 현황

(단위 : 조원)

	주식발행	유상증자	계
'21.1~11월	14.3	13.3	27.6
'22.1~11월	13.2	8.1	21.3
'23.1~11월	3.4	6.8	10.2

자료 : 금융감독원

II. 2024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기업금융시장 여건 분석

(1) 경제·금융환경

-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나 주요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제 둔화 전망
 - (세계경제) '24년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4%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선진국) 미국과 일본은 고용, 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23년 대비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한편, 유로존은 순수출 개선에 따라 1%대로 회복 전망
 - (신흥국) 부동산 침체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되며, 선진국 소비 둔화의 영향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신흥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전망

<표 5>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국 가	2022	2023(E)	2024(F)
세계	3.1	3.0	3.0
선진국	2.6	1.5	1.5
미국	2.1	2.1	1.5
유로존	3.3	0.7	1.2
일본	1.0	2.0	1.0
신흥국	4.1	4.0	4.0
중국	3.0	5.0	4.2
멕시코	3.9	3.2	2.1
인도	7.2	6.3	6.3
아세안5	5.5	4.2	4.5

주 :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지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3.10)

○ '24년 국내경제는 설비투자 및 수출 회복 등으로 2.2%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실물경기 부담도 지속 전망

- (민간소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전대비 높아진 금리수준이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 반도체 하락조정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며 내년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가계의 부동산 수요감소, 부동산 PF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 수주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 (수출)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화강세, 무역장벽 심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여타 산업의 수출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표 6> 2024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억달러)

구 분	2022	2023(E)	2024(F)
국내총생산	2.6	1.3	2.2
민간소비	4.1	2.0	2.2
설비투자	△0.9	△3.8	4.4
건설투자	△2.8	0.1	△0.2
경상수지	298	225	480
수출	6.3	△12.3	3.8
수입	17.7	△8.0	△0.9
소비자물가	5.1	3.5	2.8
실업률	2.9	3.0	3.0

주 : 1) 경상수지와 실업률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

2)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2) 정책·규제환경

□ '24년 미국의 금리인하 시 내외 금리차 축소, 자금유출 압력 완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

- 한국은행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
 - 미 연준도 '23.12월 FOMC에서 '24년 기준금리 전망치(4.6%)를 9월 전망치(5.1%) 대비 하향함에 따라, 국내 금리인하 여건 제고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편,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이 지속될 전망

- 고정금리 대출 확대, DSR 제도 개선 등 정부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는 '24년에도 지속될 전망
 - '23.5월,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을 목표로 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마련
 - 가계부채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23.9.13일부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⁶⁾하였으며, '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Stress DSR 제도 도입 예정⁷⁾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신산업 경쟁력 향상, 기업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기업금융 중심의 금융지원 확대 예상
 - '24년 정부 정책방향⁸⁾과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을 감안시 '24년에도 정부의 기업 지원 기조 지속 전망
 - 특히, 시설투자 자금 공급 확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⁹⁾ 등 정책 기조는 대기업 투자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6)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원인으로 언급되면서 동 조치 도입
7) 변동금리부 대출의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24년 중 적용대상을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까지 적용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

8) '24년 정책금융 자금공급 규모(계획)를 '23년 205조원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으로 설정('23.12월,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9)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시설자금 공급을 '23년 50조원에서 '24년 52조원으로 확대('24.1월, '24년 경제정책방향), 글로벌 초격차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 앞 '24년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약 102조원으로 설정하여 '23년 91조원대비 11.5% 증가('23.12월,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 **자본규제 강화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이 진행 중이나 이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은 국내은행의 영업 확대에 부정적 요인
 - '24.5월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경기대응완충자본(1%)을 부과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23.3월) 발표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¹⁰⁾에 따라 이용 차주 중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1년(~'24.9월)의 거치기간 후 분할 상환이 시작될 예정
- 그러나, 규제 수준을 큰 폭 상회 중('23.9월말 기준)인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고려시 자본규제가 은행권 대출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도 양호
 -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 112.1('19년) → 138.3('20년) → 165.9('21년) → 205.6('22.6월말) → 226.4('23.6월말)

(3) 자금수요자 측면

□ **'24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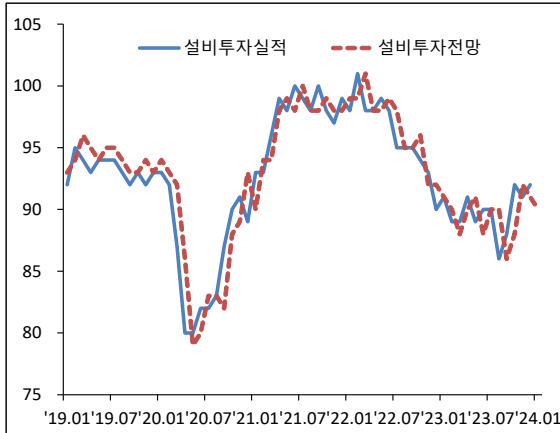
- '23년 설비투자는 수출 및 내수 침체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지연으로 전년대비 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 '23년 1~3분기 설비투자는 134.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2.1%)에 그쳤으며 특히 '23.3분기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2% 감소
- '24년에는 반도체 기업 첨단공정 투자, 완성차 업체 등의 친환경 수요 대응 등이 설비투자 회복 요인으로 작용 전망
 - 설비투자 BSI¹¹⁾ 실적치는 '22.2월 101에서 '23.8월 86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소 상승하면서 '23.12월에는 92를 기록

10)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20.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3.9월에 종료

11) 설비투자 BSI = '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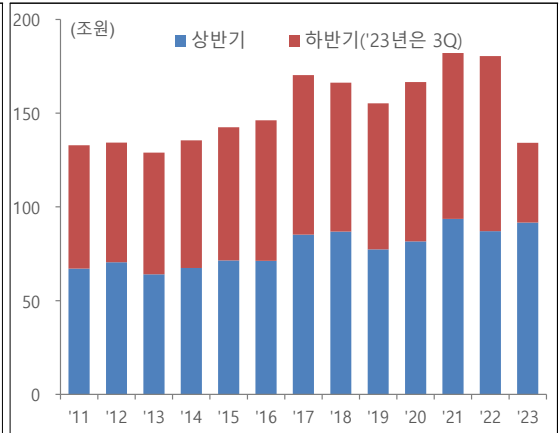
- 설비투자 BSI 전망치의 경우 '22.3월 101에서 '23.9월 86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여 '24.1월 90을 나타냄

<그림 3> 설비투자 BSI 추이



주 : 1) 제조업 기준
2)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4> 설비투자규모 추이



주 : '23년 하반기 실적은 3Q 반영(4Q 미발표)
자료 : 한국은행

□ 기업의 대출수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대응 차원의 유동성 확보, 설비투자 수요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고금리, 대외 수요 둔화 등으로 Credit Risk가 확대되면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기업에 부담 요인

<표 7>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수요지수 추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대기업	-7	27	9	-3	6	0	12	-3	6	6	8	28	3	17	17	14
중소기업	33	63	32	18	32	21	26	6	6	6	3	3	6	19	17	28

주 : '23.4Q는 전망치. 양(+)은 증가 음(-)은 감소 의미
자료 : 한국은행('23.10),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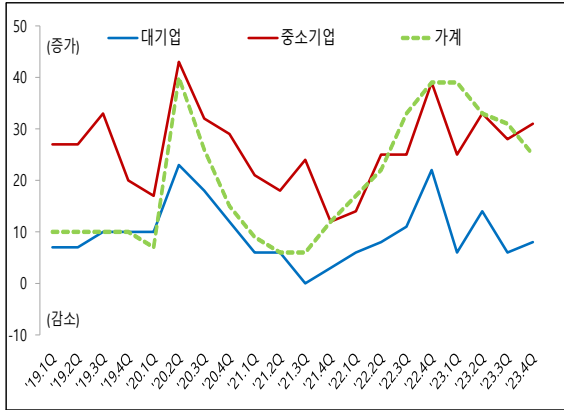
<참고 1>**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개요**

- 조사대상 : 총 204개 금융기관
 - 국내은행 18개, 상호저축은행 2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42개
- 조사내용 :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 동향 및 향후 3개월간 전망을 조사
- 지수산출 :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동향 및 향후 전망을 5개 응답항목을 통해 조사한 후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 응답항목 : 크게 완화(증가), 다소 완화(증가), 변화없음, 다소 강화(감소), 크게 강화(감소)
 - 가중평균 : $\{ ['크게 완화(증가)'] \text{ 응답비중} \times 1.0 + ['다소 완화(증가)'] \text{ 응답비중} \times 0.5 \}$
 $- ['크게 강화(감소)'] \text{ 응답비중} \times 1.0 + ['다소 강화(감소)'] \text{ 응답비중} \times 0.5 \} \times 100$
- 지수범위 :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기준치는 0
 -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

(4) 자금공급자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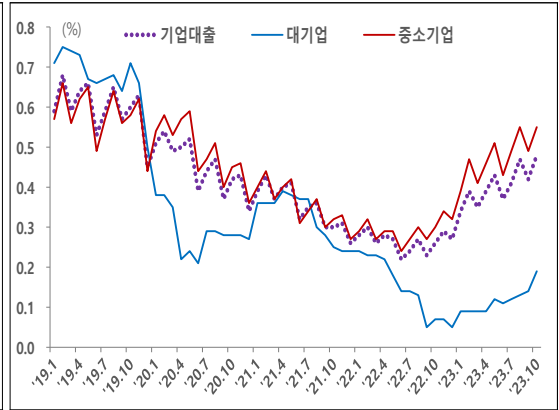
- **기업 신용위험은 중소기업 위주로 확대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강화로 국내 은행의 기업 앞 대출태도가 완화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
 - (신용위험지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 고금리 수준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신용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중소기업은 일부 취약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이 예상되어 신용위험 증가세가 대기업 대비 높을 전망
 - (연체율)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2년 6월 0.22%로 저점을 나타낸 후, 상승 반전하여 '23.10월 0.48% 기록
 -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고비용구조(고금리, 고환율 등) 지속 등 감안시 향후 연체율의 추가 상승 여지 상존

<그림 5>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주 : '23.4Q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대출태도) 국내은행의 기업 앞 대출태도는 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3.4분기 중 국내은행의 기업 앞 대출태도는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며,
 - 중소기업은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에 따른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강화된 대출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감안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은 증가할 가능성 존재

<표 8>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추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대기업	0	-10	-3	-3	0	-3	-9	0	0	3	-6	-6	6	3	3	0
중소기업	23	7	12	3	18	9	-3	0	0	6	-3	6	3	0	-6	-6

주 : '23.4Q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23.10),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간접금융시장 전망

□ '24년 기업대출은 경기의 점진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 증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액이 전년대비 축소될 전망

-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기업 대출수요 지속 등으로 기업대출 잔액은 증가하나 은행권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서 증가액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될 전망
 - '24년 2%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대응 차원의 유동성 확보,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대출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기업 신용위험 상승,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고려시 증가액은 축소 전망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액이 확대되나 대기업대출은 축소될 전망
 -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대출수요 지속,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 등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액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은행들이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우량기업 위주로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대출 확대 제약 요인
 - 대기업대출 증감액은 설비투자 확대, 수출 증가 등 확대 요인이 존재하나 '22~'23년중 대기업의 차입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회사채 발행 증가('24년)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축소 전망

(2) 직접금융시장 전망

□ 회사채 발행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할 전망

- '24년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163조원¹²⁾)이 지난해(143조원)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채권 순발행은 소폭 증가할 전망

12) 순수회사채 89조원, ABS 22조원, 특수채 52조원

- 종류별로 순수회사채와 ABS 발행은 증가할 전망이고, 정부의 공공부문 건축 기조 등에 따라 특수채 발행규모는 감소할 예상
 - (순수회사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 증가 및 회사채 수요 증가로 발행규모 확대 전망
 - (ABS)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상존하나, 금리 하락, 정부의 PF지원 펀드 등 안정화 정책으로 작년의 순상환 기조에서 순발행으로 전환할 전망
 - (특수채)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추진 등으로 공사채 등의 발행규모 감소 전망

□ 주식발행은 '23년 대비 투자심리 개선 및 기업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전망

- '24년 증시는 수출 회복, 달러 강세폭 완화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자금 유입 등으로 '23년 대비 완만히 회복할 전망
- '24년 주식발행 규모는 '2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4년 반도체, 2차전지 등 기업들의 신산업 투자수요 증가, 건축기조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주식발행 증가할 전망

< 붙임 >

연도별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추이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a)			ABS(b)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6년	50.3	52.7	△2.4	22.2	21.1	1.1
'17년	64.2	54.4	9.8	22.8	22.6	0.2
'18년	79.4	60.6	18.8	25.4	23.1	2.3
'19년	91.8	55.5	36.3	26.0	22.2	3.8
'20년	97.8	64.5	33.3	29.2	22.7	6.5
'21년	104.0	70.7	33.3	31.1	22.0	9.1
'22년	76.8	73.1	3.7	30.1	23.5	6.6
'23.1~11월	87.5	76.5	11.0	22.8	30.1	△7.3

	특수채(c)			계(a+b+c)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6년	18.0	28.8	△10.8	90.5	102.6	△12.1
'17년	22.8	28.7	△5.9	109.8	105.7	4.1
'18년	24.1	31.1	△7.0	128.9	114.8	14.1
'19년	30.4	27.2	3.2	148.2	104.9	43.3
'20년	37.7	27.9	9.8	164.7	115.1	49.6
'21년	39.7	25.8	13.9	174.8	118.5	56.3
'22년	63.4	24.7	38.7	170.2	121.3	48.9
'23.1~11월	55.0	27.6	27.4	165.3	134.2	31.1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